

#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헤어 에로티시즘

최정화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요약

예술성과 실용성의 경계를 이분화하지 않고 늘 가능성과 실험성을 열어놓고 있는 패션에서 헤어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욕구에 부응하며 독특한 영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헤어가 지닌 여러 상징성 가운데 에로티시즘을 토대로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헤어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표현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헤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헤어 관련 서적 및 연구 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패션 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위해 패션 전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0~2014년에 발표된 사진 자료 56점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헤어의 표현 특성 첫째, 탈경계화는 블랙, 금발, 백발의 헤어를 헤드 피스, 헤드기어, 의상으로 연결되거나 풍성하고 길게 늘어진 헤어와 유사한 모피 의복과의 연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신체 억압의 헤어 페티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동화적, 초현실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착시화는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리얼한 음모 표현과 음모를 연상시키는 헤어 프린팅 및 형태,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 초현실적 헤어 착시 작품의 응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랜 과거부터 금기시 되어 온 음모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초현실적인 유머의 추구를 의미한다. 셋째, 은유와 환유화는 실제 헤어와 다른 형태 및 컬러링으로 의복 아이템을 표현하거나 실제 헤어의 형태 및 컬러와 유사한 것으로 의복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패션 액세서리의 일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성적인 것과 의외적인 것과의 결합을 통해 재미 그리고 기이함과 같은 초현실의 성적 판타지를 전달한다. 에로틱 헤어는 자유, 매혹과 더불어 위험, 금기, 비천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어 대중적인 패션에서의 활용은 다소 불편한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에로틱 헤어가 적용된 패션 디자인은 기존의 사회, 문화적 통념을 벗고 심리적으로 감추어져 왔던 인간 욕구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보여주며,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창작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헤어, 에로티시즘, 패션 디자인

## I. 서론

대륙 간에 국경선이 없어져 가는 21세기, 헤어는 풍요와 다양성 속에서 의사소통을 확립하기 위한 표시이며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헤어는 생명의

순환과정 그 자체로 간주되어 왔으며, 모든 대륙과 시대에 걸쳐 생명력과 에너지를 상징하였다. 전통적으로 헤어는 어느 사회에서나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영혼이 거주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로 인식되었으며, 집단의 위치를 표시하는 관례적인 징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개인화가 심화된 현대

사회는 개성,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취향, 직업, 성격 그리고 의견을 드러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2)</sup>

흔히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헤어는 젠더, 민족성, 인종, 국적, 종교, 섹슈얼리티, 나이에 대하여 복잡한 범주를 표현한다<sup>3)</sup>고 한다. 헤어는 시대적인 배경을 토대로 각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상징적 기능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다. 더불어 헤어는 질감, 컬러, 스타일링이 바뀔으로써 개인의 분위기와 효과가 바뀌게 되어<sup>4)</sup> 결국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헤어가 지닌 상징성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부터 이어져온 상징성은 에로티시즘이다.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헤어의 질감, 컬러, 스타일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헤어와 에로티시즘의 관계는 예술에서도 헤어가 영감의 소재, 실재 혹은 가상의 이미지로 시각화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회화, 타이포그래피,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오브젝트 등의 예술 분야에서 헤어는 영감의 모티브로 되고 있다. 물론 예술에 활용된 헤어는 성적인 에로티시즘 뿐 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혹은 특정한 사회 속에서만 갖는 의미, 그리고 에로티시즘 이외의 상징적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의미탐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분석학에서 헤어는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된 근원적인 에로티시즘과 관련되어 있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헤어 에로티시즘은 패션에서도 현대 아티스트 혹은 하이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실험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헤어를 활용한 패션 소재는 직접적인 자연 모발 뿐 아니라 유사 인조 가발, 가상의 헤어 이미지, 헤어를 연상시키는 의외의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예술성과 실용성의 경계를 이분화하지 않고 늘 가능성과 실험성을 열어놓고 있는 패션에서, 헤어는 또 다른 경계의 산물이다.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미래적인 것에 대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도전은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헤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독특한 영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패션에서 헤어와 관련된 연구는 페티시의 대상과 음모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연구,<sup>5)</sup> 헤어스타일에 대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의 연구<sup>6)7)8)</sup> 그리고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sup>9)10)</sup> 등으로 직접적인 헤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에로티시즘과 깊은 연관을 지닌 헤어는 실제적인 헤어 뿐 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에도 적용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 에로티시즘이 적용된 패션 디자인의 사례를 수집하고 표현 방법과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헤어 에로티시즘을 토대로 한 새로운 패션 디자인 발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헤어의 개념과 기능, 사회, 문화 속 헤어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고, 예술에서 헤어 에로티시즘과 관련된 작품을 시대별로 수집하여 그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예술에서 범주화된 표현 유형은 패션 디자인에서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의미로 도출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헤어 에로티시즘과 관련된 서적 및 연구 논문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패션 전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0~2014년에 발표된 패션 디자인 작품 56점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사진 자료는 자연적인 헤어와 더불어 인조 가발, 가상적인 헤어 이미지, 헤어를 연상시키는 소재가 모두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 II. 헤어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헤어의 개념과 기능

헤어(Hair) 즉 모발(毛髮)은 신체의 털을 뜻한다.

손바닥, 발바닥, 점막과 피부의 경계부위, 귀두부위를 제외한 피부 어디에나 모발은 존재한다. 모발은 실 모양으로 피부 겉으로 자라게 되며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헤어는 표피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지며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위의 헤어는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있어 마찰을 감소시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헤어 가운데에서도 신체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부위인 머리카락은 다양한 외부 자극, 즉 물리적 충격과 자외선, 추위나 더위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준다. 눈썹과 속눈썹도 역시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코 안의 헤어는 미세 먼지와 같은 외부의 자극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기능이 있다.<sup>11)</sup>

몸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헤어는 빗겨지고 염색되고 컬링(curling)되고 퍼지고, 주름 잡히고, 들어 올려지고, 뒤로 묶여지고, 장식되고, 뽑혀지고, 면도되는 스타일링(styling)<sup>12)</sup> 등에 의해 신체를 장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헤어는 길이, 컬러, 스타일 또는 부재에 따라 생물학적 성(sex), 인종, 나이, 성욕, 종교, 민족성, 사회·문화적 남녀의 정체성을 표현한 젠더(gender), 계층 등의 지표가 되기도 하여<sup>13)</sup> 개인 및 집단의 차이를 만들고 구축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2. 사회, 문화 속 헤어 에로티시즘

### 1) 헤어의 형태

에로스에서 유래된 에로티시즘은 옥스퍼드 사전에서 성적 욕망 또는 흥분으로<sup>14)</sup> 미술용어 사전에서는 육체적 애욕에 관계하는 과도한 기호 혹은 작품의 관능적 정욕을 불러내는 성질<sup>15)</sup>로 되어 있다.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성행위와 번식에 대한 자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심리적 추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sup>16)</sup>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예술인 에로틱 아트와

같이 에로티이라는 말 역시 육체나 정신 속의 성적 감각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에로티즘의 저자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생식을 목적으로 한 기능적인 성 특성과 성적 행동의 제2의 형태인 에로티시즘 간에는 황홀경(ecstasy)이나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면까지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은 서구 사회에서 종종 부정되거나 오해를 받아왔다고 하였다. 에로티시즘은 도덕적, 사회적 타당성의 한계에서 위협한 존재로 남아 있으며, 항상 잠재적으로 혼돈되고 위협적인 본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유해하고 일탈적인 동시에 파괴적이기도 한 에로티시즘은 우리가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역설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와서, 에로티시즘의 원초적 표현이 된 페티시즘은 성적 환상을 자극하고 새로운 감각과 도덕성을 창조하였다.<sup>18)</sup>

에로스적 욕망을 부추기는 헤어로써 머리카락은 여인의 욕망을 담고 있는 애무 그 자체이며, 위협적인 환상성을 표현한다. 머리카락이 지닌 의미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본으로는 그리스 신화 속 뱀의 머리카락을 소유한 메두사가 있다. 메두사는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을 돌로 변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sup>19)</sup>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뱀 모양의 머리카락은 여성들의 페니스 부재를 대신하는 것으로 거세의 공포를 완화하는 것이며, 남성에게 보호적인 소유감을 준다는 것이다. 즉, 메두사의 상징적인 머리카락은 남성들에게 페니스의 소유, 그리고 안심,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sup>20)</sup> 현대의 해석가들 역시 이러한 메두사의 신화가 금지된 무의식적 욕망과 대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21)</sup>

고대로부터 여성의 머리카락은 도덕적 속성 혹은 결핍, 순수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의 함축, 자만심이 강한, 내포된 속임수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 가운데 에로티시즘과의 관련성은 여성 머리카락의 느슨함에 있다. 느슨한

머리카락은 도덕적 ‘느슨함’으로 상징되거나 또한 ‘자연적’ 관능성(sensuality)을 상징하였다.<sup>22)</sup> 따라서 유혹적인 여성들의 느슨한 머리카락은 몇몇 가톨릭 국가에서 금기시되기도 하였다.<sup>23)</sup>

길게 풀어 헤쳐진 헤어에 대해 콕스(Caroline Cox)는 빅토리아 시대의 섹슈얼한 유혹을 지닌 폭포수와 같은 헤어를 보며 ‘적극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소녀와 여성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풀어 올렸다. 헤어는 몸의 연장으로 간주되었으며, 쪽진 머리(bun), 말아 올린 시뇰(chignon)과 같은 머리는 페미니티(femininity), 그리고 폭포수와 같이 늘어진 머리는 섹슈얼한 것으로 이해되어 통제되지 않은 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24)</sup> 여러 시대를 통해 느슨하며 길게 풀어 헤쳐진 헤어는 사회 규율과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자유로움과 유혹의 에로티시즘을 반영하고 있다.

헤어 에로티시즘의 원초적 표현인 헤어 페티시즘을 논한 에델코르트(Edelkoort)는 「Fetishism in fashion」에서 “에로틱한 헤어는 사랑을 의미하며, 헤어에 대한 강박관념은 페로몬(pheromones)을 경유하여 섹스 호르몬(hormones)을 분비하게 한다. 후각, 촉각, 시각적인 자극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때때로 페티시스트(fetishist)에게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헤어 페티시스트는 그들의 강박관념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브레이드(braid) 또는 플레이트(plait)에 연관되며, 이때 머리카락 형태가 채찍과도 닮아 있어 감성적인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sup>25)</sup>

페티시스트들에게 채찍과도 같은 헤어의 환상은 도미나트릭스(Dominatrix)의 포니테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도미나트릭스는 남성들에게 섹시한 매력과 위험성을 지닌 강한 여성이며,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까지 갖추고 있다. 도미나트릭스의 포니테일은 섹시한 매력을 환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는 통제되고 있는 여성의 표시이다. ‘규율

화 된 머리’(disciplined heads)는 섹슈얼리티와 페미니티, 그리고 자아 통제라는 대립되는 페르소나를 공유하고 있다.<sup>26)</sup> 미묘한 관점 속에서 채찍을 닮은 도미나트릭스의 포니테일은 도발적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명백히 환기시킨다.

헤어 에로티시즘의 형태는 가발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가발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에로티시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로부터 가발은 탈모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긴 하지만, 여성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헤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일본 에도 시대(Edo, 1603~1868)의 니혼가미(Nihongami) 헤어 스타일은 매춘부들이 사용한 거대한 가발이며, 오늘날에는 전통 제식을 위한 게이샤들에게 사용되고 있다.<sup>27)</sup> 법적 요구로부터 시작된 창부의 거대한 가발은 성적 매력의 한 요인이 되었다.

에로틱 헤어 가운데에서도 비어성스러움으로 특별하게 간주되어왔으며 많은 사회, 문화 속에서 금기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여성의 음모(pubic hair)가 있다. 음모는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어서<sup>28)</sup> 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 금기를 깨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음모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한 학자는 프로이트이다. 프로이트는 성기를 숨기거나 바라보도록 유혹하는 음모에 대해 미묘한 에로티시즘의 감각을 암시한다고 보았으며, 털과 벨벳이 음모에 대한 원초적 에로티시즘인 페티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sup>29)</sup>

## 2) 헤어의 컬러

헤어 에로티시즘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컬러(color)이다. 에로티시즘을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컬러인 블랙은 밤, 위험, 어둠, 슬픔, 사악하고 파워풀함을 나타낸다.<sup>30)</sup> 역사 속 블랙 헤어의 여성들은 능숙한, 지적인,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섹시한, 드라마틱한, 이국적인, 심지어 요부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작



<그림 1> Theda Bara  
(출처: [http://www.wired.com/2011/05/pl\\_prototype\\_bar/](http://www.wired.com/2011/05/pl_prototype_bar/))



<그림 2> Elizabeth Taylor  
(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6/20/africa-world-cup\\_n\\_5516292.html](http://www.huffingtonpost.com/2014/06/20/africa-world-cup_n_5516292.html))



<그림 3> Farrah Fawcett  
(출처: <http://www.beautystat.com/site/tag/curls/>)

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흔히 아시아인들이 지닌 빛나는 블랙의 긴 머리카락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sup>31)</sup> 뱀프로 잘 알려진 테다 바라(Theda Bara) <그림 1>의 구불거리며 느슨한 머리카락과 영화『Cleopatra, 1963』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의 정교하게 땀을 채찍을 닦은 블랙 헤어 <그림 2>는 요부의 에로틱한 이미지와 에스닉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에로티시즘을 연상시키는 헤어 컬러는 북유럽 신화 속 붉은 머리카락이 있다. 서구의 미신과 판타지 속에서 붉은 머리카락은 악의적인, 불길한, 부정적인, 폭력적인, 피투성이의, 지옥 같은 에로틱 그리고 악마적인 도덕적 질서에 위협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인해 1254년에 프랑스의 루이왕(Louis)은 매춘부를 존경할 만한 여성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붉은 색으로 염색할 것을 법으로 규정할 바 있기도 하다. 결국 붉은 머리카락은 에로틱한 상상의 오브젝트가 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이르러 악마와 회의의 기호가 되었다. 매춘, 위험, 금기 등을 연상시켰던 붉은 머리카락은 19세기에 시와 회화를 통해 점점 더 진기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광고와 영화, 패션미디어에서 과거와 달리 점점 더 긍정적 이미지-강한, 열정적인, 오리지널, 섹시-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sup>32)</sup>

헤어 에로티시즘의 상징적인 컬러로 금발을 빼놓을 순 없다. 금발에 대한 예찬은 중세 시대부터 끊이지 않았을 정도였으며,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sup>33)</sup> 심리학자 토니 폴원(Tony Fallone)의 1997년 논문 따르면 금발은 순수한, 연약한, 젊은, 쿨한, 순결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섹시한, 교태를 부리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낳는다고 하였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금발은 20세기 할리우드의 스타 시스템을 통해 대중들에게 ‘금발이 더 매력적이다’는 가치를 전파하였으며,<sup>34)</sup> 길이나 스타일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물결치듯 느슨하게 구불거리는 긴 헤어를 지니고 있다. 1930년대는 금발 스타로 진 할로우(Jean Harlow), 제인 맨스필드(Jayne Mansfield), 베로니카레이크(Veronica Lake), 캐롤 롬바드(Carol Lombard),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가 유명하며, 1950년대에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새로운 금발로 까뜨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 아니타 에크베르그(Anita Ekberg), 줄리 크리스티(Julie Christie), 캔디스 버겐(Candice Bergen), 1970년대는 제인 폰다(Jane Fonda), 보 데렉(Bo Derek), 파라 포셋(Farrah Fawcett) <그림 3>과 같은 핫(hot)한 금발<sup>35)</sup>의 육감적인 스타들이 등장하여 금발은 곧 에로티시즘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물론 많은 연구에서 금발은 미디어의 영

향으로 인해 백치 미인이라는 의미의 덤 블론드(dumb blond)의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도 가지고 있으나<sup>36)</sup>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 아름다움과 같은 긍정적 인식이 이어져 왔다.

에로틱 헤어는 가발의 컬러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가발은 고대 로마의 경우 천직과 법적 요구의 표시로서 금발의 가발이<sup>37)</sup> 매춘부에 착용되었다. 로마법에 의하면 매춘부들은 노란색 가발을 착용하거나 머리카락을 노랗게 염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면 머릿결이 상했기 때문에 주로 노란색 가발을 쓰는 편이었다고 전해진다.<sup>38)</sup>

<표 1>은 사회, 문화 속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유형과 내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 3. 예술 속 헤어 에로티시즘

#### 1) 20세기 이전

예술에서 성을 주제로 다루거나 그것을 관능적으로 표현한 에로티시즘은 누드가 주요하게 차지하여 왔다. 고대 신화에서부터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가슴, 머리카락, 음모 등으로 성적 환상을 자극하였다. 회화를 통해 주로 표현된 여성의 나체는 예술가들을 사로잡았으며,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은 사랑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며 사슬, 그물, 함정 등의 의미로 전달되었다.<sup>39)</sup>

종교적으로 금욕주의를 표방하였던 중세시대는 처녀들만이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닐 수 있었다.<sup>40)</sup> 회화에서는 13세기에 이르러 겨우 나체의 아담과 이브가 묘사되기 시작하였으며,<sup>41)</sup> 팜므 파탈로 불리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살로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인 이브의 풀어 헤쳐진 긴 머리카락을 묘사한 보스(Hieronymus Bosch)의 작품 <그림 4>와 같이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과 세속적인 창부의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이 있는 누드 작품 등이 있다. 정신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된 중세는 에로티시즘이 잠시 쇠퇴하였던 시대였으나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본성을 한층 더 강조한 예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화가는 건강한 육체에 대해 조형적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sup>42)</sup> 신화를 빌어 표현된 누드가 주로 등장하는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길게 풀어 헤쳐진 헤어로 주목을 받은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Birth of Venus, 1484년 경』가 주요하게 손꼽힌다. 이 작품은 개인의 성적 쾌락과는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 에로티시즘의 우회적 표현으로<sup>43)</sup> 비너스의 풍만한 가슴과 음모를 가리고 있는 길게 풀어 헤친 과장된 금발이 시선을 압도한다.

15~16세기를 거쳐 귀족 중심의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도 현실의 누드에 대한 표현이 제한되었으며, 주로 신화를 빌어 표현한 누드 작품이 등장한다. 헤어

<표 1> 사회, 문화 속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유형과 내적 의미

		표현 유형	내적 의미
사회, 문화 속 헤어 에로티시즘	헤어 형태	▶ 길고 자유롭게 풀어 헤쳐진 헤어	▶ 자유, 매혹, 통제되지 않는, 반항, 위험
		▶ 채찍과 닮은 브레이드, 도미나트릭스의 포니테일	▶ 섹시한 매력, 위험성
		▶ 창부의 거대한 가발	▶ 매혹, 계급
		▶ 음모	▶ 금기, 비천
	헤어 컬러	▶ 레드 헤어	▶ 악의적, 불길, 부정적, 폭력적, 피, 에로틱, 매춘, 위험, 금기, 섹시
		▶ 금발	▶ 아름다운, 섹시한 매력, 순결
		▶ 팜므 파탈의 검은 헤어	▶ 위험, 어둠, 슬픔, 파워풀, 능숙, 지적, 신뢰할 수 있는, 이국적, 악마적, 드라마틱



<그림 4> Hieronymus Bosch의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의 일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nkey=2012051000084066332&mode=sub\\_view](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nkey=2012051000084066332&mode=sub_view))



<그림 5> William Homan Hunt의 『The Lady of Shalott』  
(출처: 『Idols of perversity』, 1988, p. 38)



<그림 6> Francisco Goya의 『The Nude Maja』  
(출처: 『Eroticism & art』, 2007, p. 43)

는 정돈된 쪽진 머리가거나 단정하게 땀은 머리로 주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비너스나 사슬에 묶인 안드로메다(Andromeda)를 표현한 작품에서 구불거리며 길게 늘어트려진 헤어가 특징적이다. 이어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향락적인 성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기였으며,<sup>44)</sup> 헨리 푸셀리(Henry Fuseli)의 『The Nightmare, 1781』에서와 같이 에로틱한 포즈와 함께 흐트러진 긴 머리카락이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이어졌다.

19세기는 낭만주의가 지배하였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에 대한 표현이 에로티시즘으로 승화되었다. <그림 5>는 1857년경 윌리엄 홀만 헌트(William Holman Hunt)의 『The Lady of Shalott』이라는 작품이다. 아더왕 시대의 전설적인 여인 일레인(Elaine)의 판타지 스토리를 표현한 이 작품은 길게 과장된 그녀의 헤어가 랜슬롯(Launcelot)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세기말에는 또한 팜프 과탈의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이 뱀과 함께 종종 묘사되어 남성을 유혹하는 사악함의 은유로 나타난다. 유사한 맥락으로 1895년 몽크(Edvard Munch)의 『Madonna』는 죽음과 공포로 남성에게 해악에 되는 존재로 여성의 누드를 그렸으며, 구불거리는 배경 화면과 함께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이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19세기는 또한 클래식한 서구 예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음모가 근대 회화 최초로 등장한 시기였다. 1800년에 등장한 고야(Francisco Goya)의 『The Nude Maja』는 여성의 음모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당시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그림 6>. 그리고 1866년에는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Gustave Courbet)는 『The Origin of the World』에서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는 여성을 묘사하여 음모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쿠르베의 작품에서 여성의 음모는 누드 속에서 여성의 얼굴만큼이나 욕망에 대한 오브젝트로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45)</sup> 이후 여성의 음모는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관음적인 시각과 함께 에로티시즘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 2) 20세기 이후

20세기 이후 헤어 에로티시즘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그의 작품은 아르누보 예술사조의 영향과 함께 금발 혹은 블랙의 긴 헤어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굽이치며 화면을 가득 채운다. 1930년대에는 초현실주의자들이 노골적으로 여성의 오르가슴(orgasme), 자위, 그리고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 다른 성적 도착 그리고 성(性)이라는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sup>46)</sup> 헤어를 소재로 한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Le Viol』에서는 음모와 굽이치는 긴 머리카락이 여성의 몸을 얼굴에





<그림 7> René Magritte's  
『Le Viol』  
(출처: 『Eroticism & art』, 2007,  
p. 133)



<그림 8> Fiene Scharp's 『Untitled』  
(출처: 『Hair'em Scare 'em』, 2009, p. 30)



<그림 9> Charlie Le Mindu  
(출처: <http://atoposcvc.tumblr.com/post/83719000051/atopic-bodies-iii-the-eitrichous-tribe-with>)

빛넋 초현실적 착시로 나타난다<그림 7>. 불합리한 형상을 창조한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는 비록 기이하기는 하지만 헤어에 에로티시즘 표현의 주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였던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하다.

예술에서 헤어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시기는 20세기말 신체에 대한 탐구가 만연해진 때이다. 특히 신체에서 분리된 헤어는 기이함, 비천함과 함께 여성의 에로틱한 몸을 대변하는 환유적인 오브젝트로 표현되었다. 가령, 헬렌 채드윅(Helen Chadwick)의 『Loop My Loop, 1991』는 욕망, 혐오감, 그리고 여성적인 신체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반짝이는 바비(Barbie Doll)의 금발머리, 핑크 돼지의 창자를 꼬아서 표현한 작품이다. 헤어는 직접적인 바디의 재현을 피하는 대신 여성 몸을 나타내기 위한 환유로<sup>47)</sup> 표현되었다.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잘린 헤어는 몸의 일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잘려져서 몸과 분리되어 기이함을 드러낸다. 기이함에 대해 프로이트는 숨겨져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며, 실제로 새롭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던 것으로 보았다. 기이함은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익숙해있던 어떤 것의 본질을 ‘편안한, 때때로는 익숙한’(das heimliche)과 ‘불편한, 또는 익숙하지 않은’(das unheimliche)으로 표현된다. 이 용어를 토대로 헤어를 살펴보면 몸에서 헤어는 자신의 일부분이며, 익숙하고 편안한 것

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몸을 떠나게 되면 동시에 이상한 것(alien), 익숙하지 않은 것(unfamiliar), 그리고 불편한(unhomely)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sup>48)</sup>

잘려진 헤어는 오브젝트와의 결합을 통해 에로틱한 성적 판타지를 연상시킨다. 2007년 피엔 샤프(Fiene Scharp)의 접촉을 연상시키는 고무장갑과 헤어의 결합은 익숙하지 않은 기이함을 준다<그림 8>. 고무는 흔히 페티시의 상징적인 소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음모를 연상시키는 짧은 헤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환유로 작용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헤어를 활용한 <그림 9>는 찰리 르 민두(Charlie Le Mindu)의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의 입술 소파를 연상시킨 직관적인 에로티시즘 작품이다. 성적 매력 부위인 입술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에로틱한 금발의 헤어로 감싼 입술 형상의 오브젝트가 여성의 몸을 대변하며 에로티시즘을 더욱더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0>의 2001년 휴 크렛슈머(Hugh Kretschmer)의 작품에서는 붉고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조이듯 감싼 모습에 담배를 피우는 치명적 여성이 등장한다. 과장된 머리카락은 신체를 억압하듯 조이고 감추며 성적 쾌감과 더불어 기이함을 던져준다. 헤어를 과장되게 표현한 발레리 블라스(Valérie Blass)의 작품<그림 11>에서는 커다랗게 구불거리는 헤어 더미가 마네킨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억압하며 기이한 자세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0> Hugh Kretschmer  
(출처: 『Hair'em Scare 'em』, 2009, p. 147)



<그림 11> Valérie Blass  
(출처: <http://ratsdeville.typepad.com/ratsdeville/2010/06/valerie-blass-acquisitio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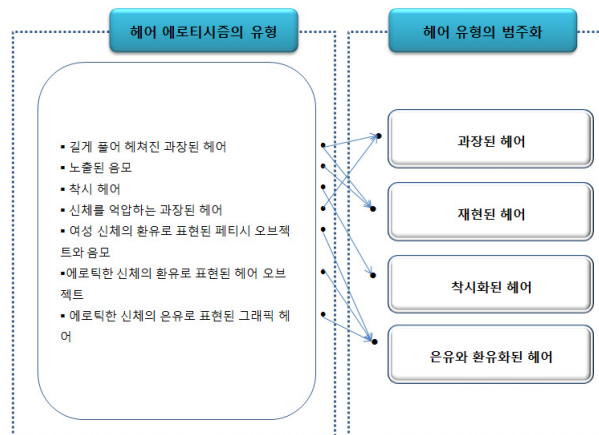


<그림 12> Riccardo Design's 『Sexy Hair』  
(출처: <http://vimeo.com/84117330>)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예술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단순한 시각적 감상과 더불어 새로운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헤어 에로티시즘의 사례인 <그림 12>는 2014년 라카르도 디자인(Riccardo Design)에서 만든 『Sexy Hair』이다. 무수한 헤어들이 변화무쌍하게 생성과 소멸, 움직임 을 반복하며 타이포그래피를 생동화하고 에로티시즘을 은유화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술에서는 인간 신체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에로티시즘에 대한 영감

의 대상으로 헤어가 주목받아 왔다. 길게 풀어 헤쳐진 과장된 헤어, 과장되고 신체를 억압하는 과격적인 헤어 유형은 결국 과장을 통해 나타난 기이함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전달한다. 노출된 음모, 노출된 성적 부위와 결합된 헤어는 음모의 재현을 통해 금기시된 것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페티시 오브젝트와 결합된 헤어, 에로틱한 몸의 환유로 표현된 헤어 오브젝트, 에로틱한 신체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는 디지털 헤어 등은 신체의 연장이 아닌 신체 이탈로 인한 오브젝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 속 헤어 에로티시즘의 유형을 범주화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예술 속 헤어 에로티시즘 유형의 범주화

### III.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분석

본 장에서는 예술 속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유형을 토대로 패션 디자인 사례를 분류하여 과장된 헤어는 탈경계화로, 재현된 헤어와 착시화된 헤어는 착시화로, 은유와 환유화된 헤어는 은유와 환유화로 각각 특성을 도출하였다.

#### 1. 탈경계화

탈 경계는 해체주의 패러다임 이후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헤어를 적용한 패션 디자인에서 탈 경계는 신체의 일부인 헤어가 연장을 넘어 과장됨으로써 헤어와 의복의 모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요한 표현방법으로는 신체 일부인 헤어를 과장되도록 연장하여 땀을 의복 아이템인 양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과장되게 늘어트려 헤어와 의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델파인(Delphine)의 작품은 채찍을 닮은 브레이드가 과도하게 연장되어 헤드기어 형태를 형성하며 헤어와 의복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그림 14>. 예술에서 과장된 긴 헤어는 신화, 판타지 요소와 함께 등장하거나 억압적인 페티시를 강조하여 왔다. 헤어로 감싼 얼굴은 이슬람 국가의 노출에 대한 금기에 대한 풍자를 담은 것처럼 억압에 대한 헤어 페티시를 강조하며 과장으로 인한 기이한 판타지를 연상하게 한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부의 상징이나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바 있는 거대한 가발은 쿨데삭과 스튜디오 마리솔(CuldeSac and Studio Mariso)의 극단적인 머리 장식에서도 나타난다<그림 15>. 이 작품에서는 로맨틱한 리본 장식의 의상과 함께 표현된 거대하게 땀을 헤어가 모델 본연의 머리카락인 것처럼 모호한 경계의 흐려짐을 보여준다.

2014년 CR Fashion Book#4에 수록된 <그림 16>은 동화적 판타지인 라퐁젤(Rapunzel)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긴 헤어를 땀을 몸은 감싼 형태로 표현된 이 작품 역시 헤어와 의복의 경계가 모호하다. 나체의 에로틱한 몸을 압박하듯 감싸고 있는 긴 머리카락은 탑에 갇힌 라퐁젤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발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나이를 먹는다는 표시, 즉 지혜의 표시이다.<sup>49)</sup>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예술 속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왔던 성적 컬러와는 다르게 화이트 컬러로 표현되어 허구적인 스토리에 판타지를 더욱더 가미하는 역할을 한다.

땀은 것과 달리 과장된 펄(perm)으로 길게 늘어트린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의 40주년 기념 작품에서는 탈 경계의 붉은 머리카락이 특징적이다<그림 17>. 북유럽 신화 속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붉은 머리카락은 오늘날 강하고 열정적이며 섹시함으로 표현하는 컬러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붉은 머리카락이 소니아 리키엘의 주요한 아이덴티티를 상징해 온 컬러이기도 하다. 붉은 머리카락은 또한 검은 색의 페티시 아이템인 스타킹과 함께 연출되어 에로틱한 패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킨다. 층층으로 쌓아올린 듯 과장된 풍성함이 주는 붉은 머리카락 소재는 대표적인 페티시 소재인 모피 의상을 연상시키며 에로티시즘을 자극한다. 본연의 헤어와 의복과의 경계선이 무너진 이 작품은 모피와 붉은 머리카락이라는 에로티시즘의 대표적인 대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 2. 착시화

착시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성질과 시각으로 본 것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에로틱한 헤어를 이용한 착시적 표현에서는 동일 및 유사한 헤어 이미지의 재현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환기시키



<그림 14> Delphine  
(출처: <http://www.trendhunter.com/trends/highness-photo-series>)



<그림 15> CuldeSac and Studio Mariso  
(출처: <http://www.trendhunter.com/trends/culdesac-and-studio-marisol>)



<그림 16> 2014 Surreal Rapunzel-Inspired Editorials  
(출처: <http://www.trendhunter.com/trends/cr-fashion-book-4>)



<그림 17> 2009 S/S, Sonia Rykiel  
(출처: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sonia-rykiel/collectio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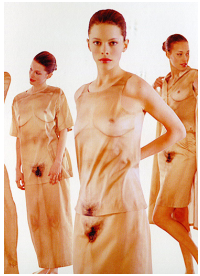
는 것과 초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특정 신체 부위를 환기시키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에로틱 헤어에는 음모를 표현한 패션이 있다. 패션계에서는 이미 2003년 구찌(Gucci)의 G로고 모양을 새긴 음모 노출 패션이 광고에 등장하면서 금기를 파괴한 큰 충격적 사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패션 광고에서 음모의 노출은 패션 디자인에서도 새로운 금기 파괴의 사례로 등장하였으며, 음모를 패션에 활용한 작품들은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을 통한 착시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18>의 사례는 음모 뿐 아니라 여성의 누드를 의복의 앞면과 뒷면에 프린팅하여 마치 실제로 노출된 신체인 양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사실적 재현의 이 사례는 더욱더 정밀하고 실제와 같은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진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영향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금기시된 은밀한 신체 부위의 이미지까지 복제하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성의 음모는 맨 살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페티시 아이템인 이너웨어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림 19>의 경우는 이너웨어에 프린팅을 적용한 사례이며, <그림 20>은 니팅 기법을 이용하여 금발의 음모를 연상하게 하는 이너웨어 디자인이다. 이너웨어에 재현된 이와 같은 디자인들은 금기시되고 음란, 퇴폐

로 인식되어 감춰져야만 했던 음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쾌한 생각을 드러낸다.

패션디자인에서 은밀함, 금기의 대상이 되었던 음모는 직접적으로 유사한 소재로 표현되기보다 문양이나 유사한 형태의 은유로 음란함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유머라는 디자이너들의 미학적 시각이 반영된 음모를 소재로 한 착시 디자인은 패션 광고 속의 음란한 음모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전환시켜주고 차별화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현실을 바탕으로 한 착시는 <그림 21>의 2006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패션 디자이너 엘자 스키피아렐리(Elsa Schiaparelli)의 1938년 『The skeleton dress』에서 영감을 얻은 드레스이다. 헤어로 만든 모자는 페도라(Fedora)로 착각할 만큼 형태가 유사하며 뼈 이미지를 재해석한 의상과 더불어 팜프 파탈의 위협적 메시지를 에로틱하게 전달하고 있다. 초현실적 착시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22>는 2009 S/S 소니아 리키엘 작품이다. 디자이너의 얼굴 프린팅과 디테일로 집목된 붉은 헤어는 마그리트가 헤어와 음모로 얼굴로 표현한 착시 작품을 연상시키며 유머를 전달한다.



<그림 18> Alba D'Urbano  
(출처: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2007, p. 107)



<그림 19> 12 "Most Bizarre Lingerie."  
(출처: [http://www.oddee.com/item\\_97021.aspx](http://www.oddee.com/item_97021.aspx))



<그림 20> 2014 Mandy Roos의 Knits trichophilia undergarments to celebrate body hair

(출처: <http://www.designboom.com/design/mandy-roos-knits-trichophilia-undergarments-body-hair-06-22-2014/>)



<그림 21> 2006년 Jean Paul Gaultier  
(출처: [http://www.elle.com/fashion/spotlight/fashion-moments-inspired-by-surrealism?src=nl&mag=elm&list=nl\\_elm\\_fsh\\_non\\_082713\\_0-wear/sonia-rykiel/collection/93](http://www.elle.com/fashion/spotlight/fashion-moments-inspired-by-surrealism?src=nl&mag=elm&list=nl_elm_fsh_non_082713_0-wear/sonia-rykiel/collection/93))



<그림 22> 2009 S/S Sonia Rykiel  
(출처: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sonia-rykiel/collection/93>)

### 3. 은유와 환유화

은유와 환유는 수사학적 기법으로써 언어학 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물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와 연상 작용을 일으키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은유는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유추나 암시에 따라 사물이나 관념을 대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외양이나 성질 등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한 사물의 이름을 다른 사물에 적용함으로써 성립된다.<sup>50)</sup> 환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에 연결된 나머지 부분을 대표시키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에 감추어진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다.<sup>51)</sup> 헤어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에서도 헤어를 재료로 하여 특정 패션 아이템과의 외적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와 신체의 일부인 잘려진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연결된 신체를 대표하는 환유로 작용한다.

패션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Jeremy Scott)의 케이프(cape) 디자인<그림 23>은 무지개 빛을 연상시키는 길게 늘어 트러진 헤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매혹과 동시에 판타지 콘셉트를 보여준다. 멀티 컬러의 긴 헤어 케이프는 잘린 머리카락을 소재로 함으로써 전체 신체에 대한 환유로 작용하며, 케이프라는 의복 아이템과의 유사한 형태로 인한 은유적 표현을 보여

준다. 헤어 아티스트이자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찰리 르 민두(Charlie le Mindu)의 2011 F/W 작품 <그림 24>도 금발의 긴 헤어가 맥시 스커트(maxi skirt)의 형태로 은유화되고 긴 헤어를 지닌 전체 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환유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섹슈얼한 붉은 립스틱과 순수한 흰 베일의 이미지가 상충되며 억압된 에로티시즘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헤어를 이용한 의복 표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그는 검은 색, 금발, 컬러풀한 색에 이르기 까지 길게 늘어트린 헤어, 브레이드 헤어 등을 에로틱한 신체 부위와 연결시키거나 전신을 감싸는 의복으로 표현하여 헤어 아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금발의 긴 헤어와 달리 <그림 25>은 긴 폭포수 이미지의 구불거리는 브라운 컬러의 잘린 헤어가 여성의 긴 머리카락에 대한 환유이자 네크리스 형태로 은유화되어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블랙 헤어는 서양에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국적인 요소이자 에로티시즘의 한 양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패션에서 긴 블랙 헤어는 동양적인 콘셉트, 공포감 혹은 에로틱함을 동시에 지닌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타비타 모시스(Tabitha Moses)의 <그림 26>은 신체가 부재하는 지갑이라는 아이템에 잘려진 검은



<그림 23> Jeremy Scott  
(출처: <http://www.dailymail.co.uk/femail/article-2102313/New-York-Fashion-Week-Jeremy-Scott-sends-Rainbow-Bart-Simpson-catwalk.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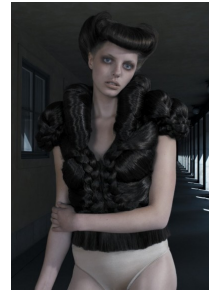
<그림 24> 2011 Charlie le Mindu  
(출처: <http://fiercerthanyou.com/2011/03/31/charlie-le-min-du-fall-2011/>)



<그림 25> 폭포수와 같은 이미지의 헤어 네크리스  
(출처: <http://bijoucontemporain.unblog.fr/search/cheveux>)



<그림 26> 2004 Hairpurse  
(출처: <http://www.tabithakyokomoses.com/page35.htm>)



<그림 27> 2004 Sandra Backlund  
(출처: 『Art & Fashion: Between Skin and Clothing』, 2012, p. 48)

긴 헤어 소재가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는 도미나트릭스의 헤어가 같은 색슈얼리티와 통제라는 대립된 개념을 동시에 상기시키며, 지갑의 일부분으로 표현된 헤어가 여성의 환유이자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팜므 파탈을 은유한다. 블랙 헤어를 독특하게 땅아서 표현한 2004년 산드라 백룬드(Sandra Backlund)의 <그림 27>은 모델의 헤어와 동질감을 주는 상의가 특징적이다. 마치 모델 고유의 헤어를 이용하여 만든 것과 같은 기이함과 브레이드를

연상시키는 꼬임, 블랙의 컬러, 그리고 스킨 톤(skin tone)의 올인원(all in one) 바디 슈트가 이국적인 팜므 파탈의 색슈얼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은유와 환유는 앞서 <그림 20>, <그림 21>과 같이 헤어와 다른 소재 혹은 모델의 헤어와 유사한 색상을 활용하여 의복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표 2>는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법과 내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법과 내적 의미

헤어 에로티시즘의 표현 특성	표현 방법	내적 의미
탈경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랙, 금발, 백발의 헤어를 헤드 피스, 헤드기어, 의상으로 연결</li> <li>▶ 풍성하고 길게 늘어진 헤어와 유사 모피 의복으로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억압의 헤어 페티시에 대한 의미 강조</li> <li>▶ 동화적, 초현실적 판타지 연상</li> </ul>
착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프린팅에 의한 리얼한 음모 표현</li> <li>▶ 음모를 연상시키는 헤어 프린팅 및 형태 표현</li> <li>▶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li> <li>▶ 초현실적 헤어 착시 작품 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기시된 음모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부터의 전환</li> <li>▶ 초현실적 유머의 추구</li> </ul>
은유와 환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헤어와 다른 형태 및 컬러링으로 의복 아이템 표현</li> <li>▶ 실제 헤어의 형태 및 컬러와 유사한 것으로 의복 디테일표현</li> <li>▶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li> <li>▶ 패션 액세서리의 일부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인 것과 의외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재미의 추구</li> <li>▶ 기이한 초현실의 성적 판타지 추구</li> </ul>



## IV. 결론

에로틱 헤어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사랑받는 소재는 아니지만 에로티시즘에 대한 직관적인 형상이며 판타지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 컬렉션에서는 실험적 성향이 강한 디자이너들이 활용할 만큼 이슈화되는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로틱한 헤어를 활용한 패션에서의 표현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체계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 활용되어 온 에로틱 헤어의 표현유형을 범주화하고 이를 패션에서 탈경계화, 착시화, 은유와 환유화로 각각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패션 디자인의 표현방법과 의미로 먼저 탈경계화는 블랙, 금발, 백발의 헤어를 헤드 피스, 헤드기어, 의상으로 연결되거나 풍성하고 길게 늘어진 헤어와 유사한 모피 의복과의 연결로 표현되었다. 이 같은 표현은 신체 억압의 헤어 페티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동화적 판타지를 연상시킨다. 둘째, 착시화는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리얼한 음모 표현과 음모를 연상시키는 헤어 프린팅 및 형태,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 초현실적 헤어 착시 작품의 응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오랜 과거부터 금기시 되어 온 음모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초현실적인 유머의 추구를 의미한다. 셋째, 은유와 환유화는 실제 헤어와 다른 형태 및 컬러링으로 의복 아이템을 표현하거나 실제 헤어의 형태 및 컬러와 유사한 것으로 의복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 패션 액세서리의 일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성적인 것과의 외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고 기이한 초현실의 성적 판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에로틱 헤어의 패션 디자인 적용은 전통적인 패션 소재와 그에 따른 기능이라는 의복의 전형적인 타입과 거리가 있다. 급진적인 과장

과 신체 억압과 같은 기이한 형태는 에로티시즘의 원초적인 페티시를 보여주면서도 다양한 사회와 문화권에서 에로틱한 여성에 대한 환유, 인종, 특유의 분위기 및 새로운 패션 이미지 등도 함께 아우르고 있다. 현재까지 에로틱한 헤어를 패션에서 활용한 사례는 예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 적으로도 많지 않다. 특히 음모를 표현한 패션 디자인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에로틱 헤어가 자유, 매혹과 더불어 위험, 금기, 비천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어 대중적인 패션에서의 활용은 여전히 불편한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로틱 헤어의 패션화 사례들은 기존의 사회, 문화적 통념을 벗고 심리적으로 감추어져 왔던 인간 욕구에 대한 직관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머, 초현실, 판타지 등과 같은 디자이너의 미학, 소재의 직접적·간접적 활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이 향후 디자이너들에게 상상력을 토대로 한 디자인 발상과 표현, 소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남성 및 민족적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에로틱 헤어 연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1) Auzou, M. C. & Melchior B. S. (2001). 머리카락, 한용택 옮김 (2005). 서울: 시공사, pp.36-37.
- 2) 위의 책, pp.11-23.
- 3) Biddle-Perry, G. & Cheang, S. (2009). Hair: Styling, culture and fashion, Oxford: Bloomsbury Academic, p.244.
- 4) Philippon, L. (2013). Hair: Fashion & fantasy, London: Thames & Hudson, p.10.
- 5) 이의정 (1998).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71.
- 6) 이수인, 박길순 (1999). 히피 헤어 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69-79.
- 7) 권기영 (2004).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젠더와 문화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8(8), pp.1100-1111.

- 8) 김정미, 설유진 (2006).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2), pp.225-232.
- 9) 김경인, 유영선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헤어 디자인의 표현특성분석, 복식문화연구, 17(6), pp.1021-1033.
- 10) 최수경 (2014). 남성 토털 패션을 위한 의복 이미지, 헤어스타일이미지, 헤어 스타일행동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pp.633-642.
- 11)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모발), 자료검색일 2015.01.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790&cid=51006&categoryId=51006>
- 12)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3.
- 13) 위의 책, p.98.
- 14) Oxford Dictionaries(검색어: eroticism), 자료검색일 2015.08.17.[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merican\\_english/eroticism](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merican_english/eroticism)
- 15) 월간미술 (1998).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p.321.
- 16) Bataille, G. (1957).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2009). 서울: 민음사, p.11.
- 17) 월간미술. 앞의 책, p.321.
- 18) 이의경. 앞의 책, p.20.
- 19) Auzou, M. C. & Melchior B., S.. 앞의 책, pp.40-41.
- 20)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p.101-102.
- 21) Auzou, M. C. & Melchior B., S.. 앞의 책, p.41.
- 22)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9.
- 23) Philippon, L.. 앞의 책, p.10.
- 24)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208.
- 25) Edelkoort, L. (2013). Fetishism in fashion, Amsterdam: Frame Publishers, p.67.
- 26)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p.212-213.
- 27) Philippon, L.. 앞의 책, p.233.
- 28)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175.
- 29) 위의 책, pp.45-46.
- 30) Sherrow, V. (2005). Encyclopedia of hair: A cultural history, Westport: greenwood, p.150.
- 31) 위의 책, p.150.
- 32) Philippon, L.. 앞의 책, p.151.
- 33) Ebberfeld, I. (2007). 유희의 역사, 강희진 옮김 (2009). 서울: 미래의 창, p.271.
- 34) Cox, B., Jones, C. S., Stafford, D. & Stafford, C.. 앞의 책, p.220.
- 35) Philippon, L.. 앞의 책, p.126.
- 36) Sherrow, V.. 앞의 책, p.149.
- 37)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142.
- 38) Cox, B., Jones, C. S., Stafford, D. & Stafford, C. (2012). 아름답고 기괴한 패션의 역사, 이상미 옮김 (2013). 서울: 투플러스북스, p.204.
- 39) Auzou, M. C. & Melchior B., S.. 앞의 책, pp.40-41.
- 40) Ebberfeld, I.. 앞의 책, p.275.
- 41) 송윤하 (1998). 에로티시즘, 서울: 춘광, p.247.
- 42) 두산백과(검색어: 에로티시즘), 자료검색일 2015.08.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084&cid=40942&categoryId=32856>
- 43) 이훈규 (2008). 시각예술의 에로티시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44) 김보화 (2011). 에로티시즘 미술을 통한 페미니즘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45)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47.
- 46) Palumbo, D. (1986). Eros in mind's eye: Sexuality and the fantastic in art and film, New York: Praeger, p.76.
- 47) Biddle-Perry, G. & Cheang, S.. 앞의 책, p.169.
- 48) 위의 책, p.185.
- 49) Auzou, M. C. & Melchior B., S.. 앞의 책, p.27.
- 50) 전병래 (1996). 은유(Metaphor)에 관한 연구: G.Lakoff 이론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13(-), p.21.
- 51) 박영원 (2001). 디자인 기호학,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p.70.



## **A Study on Hair Eroticism Applied to Fashion Design**

**Choi, Jung Hwa**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Eroticism is one of the important symbolism of hair, influencing on desire and inspiration of fashion designers in modern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ressive methods and inner meanings about the hair as expression of eroticism applied to fashion design. It also analyzed recent documentaries on hair theories and then fashion books, internet fashion web sites for this study. This study reviewed 56 photos in fashion collections and fashion web site from 2000~201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ashion types of erotic hair were categorized into blurring boundary by exaggerated hair, illusion by representation of pubic image and metaphor and metonymy by objected hair. In fashion collections and fashion web sites, blurring boundary by exaggerated hair is expressed in headpiece, headgear, clothes made of black, blonde, white hair and a similar form like fur clothes. It means that erotic hair reminds us of fetishism, fairy tale and surreal fantasy in fashion design. Second, illusion by representation of pubic image is expressed in digital printing and a similar pubic hair form. It means that pubic hair image could be changed to another image like humor image in fashion design. Humor image of pubic hair change narrow-mindedness about taboo and humble image. Third, metaphor and metonymy by objected hair is expressed in erotic clothes which differ from real hair and fashion accessories made of long black, braided black, long blond, braided blond and colorful hair. It means that erotic hair pursues fun loving, surreal and sexual fantasy in fashion design. Erotic hair expresses human's desire and has an effect on the creative motivation of a fashion designer.

Keyword : hair, eroticism, fashion design